



제목	Darius in the Shadow of Alexander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rva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 1. 5.
저자	Pierre Briant Jane Marie Todd(번역자)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608
ISBN 또는 ISSN	978-0674493094

내용 요약

이 책은 “다리우스 3세가 역사의 망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책이다. 화폐학, 고고학, 역사학, 문헌학에 관한 사료들을 총 집대성하여 아케메네스 제국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역사학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다. 다만 오타나 산만한 그림, 비전문가적인 시각이 흠이다.

책은 총 5부 12장으로 되어 있다. 1부 “불가능한 전기”에서는 다리우스 3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이집트, 페르시아, 바빌로니아의 사료를 검토하였다. 또 르네상스 시대 다리우스를 ‘열정적인 낭만주의자’라는 평가와, 18-19세기 용기 있는 군주 이미지와 함께 제국의 종말을 가져온 무능한 겹쟁이의 이미지도 설명하였다. 2부 “대비되는 모습”에서는 다리우스가 영웅 알렉산드로스와 대조되는 인물로 그려졌음을 주장하였다. 3부 “꺼림과 열정”에서는 다리우스의 성격을 밝히는 것으로서 주요 주제는 다리우스의 궁정 대신과의 대화, 아첨꾼들의 총애, 편집광, 전투에서의 도주, 마케도니아의 절제에 대비되는 사치 등이다. 4부 “다리우스와 다라”에서는 다리우스의 성격적인 흠이 패배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였다. 그의 부주의하면서도 거친 태도가 배반과 배신의 씨앗이 되어 그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 편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미지가 후대의 전통, 특히 사산조 설립자인 아르다시르에게 유익하게 활용되었다. 5부 “최후의 평가와 몇 가지 제언”에서 저자는 진실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설에서 역사적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다리우스가 살아서 제국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기록이 역사적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